

휴대폰 유감

김강석/SBS 편집부 차장

얼마전 지방으로 옮기신 선배분과 2년만에 가
까스로 통화를 했다. 몇차례 전화를 드렸지
만 번번이 통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. "아니 선배
핸드폰을 안 가지고 계시던데요."

"그래 난 핸드폰이 없지. 껌 껌" 핸드폰을 가지고
계셨다면 곧바로 통화가 됐을텐데 이 선배분은 너
무나 희귀하게도 무폰(無 phone?)을 자랑스럽게 여
기며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셨다. 하염없이 웃을
수 밖에 없었다.

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은
거의 도인(道人)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.
도인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. 급속히 불어닥
친 휴대폰 바람은 불과 5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하
는 추세를 보여 지금은 3천만대. 갓난 아기까지 다
쳐서 인구 10명당 6명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셈
이다. 노인과 어린이 정도를 제외한다면 1인 1핸드
폰 시대를 맞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. 이런 휴대
폰 보급률은 세계 8위 수준으로 미국보다 앞섰다.

지난 99년 우리나라가 핸드폰 2천만대를 돌파했
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물 간 이른바 뼈
빠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었고 핸드폰은 보급 초기
단계였을 정도로 드물게 사용되고 있었다.

우리가 정보화에 앞서 가는 것인지 휴대폰 과소
비에 빠진 것인지 딱 부러지게 말할 순 없지만 이
2가지 사실이 섞여 있다고 보면 어긋나지 않을 것
이다.

생활필수품이다 보니 핸드폰에 대한 관심도 많을
수 밖에 없다.

핸드폰과 관련된 뉴스 아이템은 다른 아이템에
비해서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. 2년
전 필자도 뜻한 바 있어 핸드폰 없이 살아보려 한
적이 있다. 하지만 그것도 잠시, 방송국 사정상 기
자가 핸드폰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
는 일이었던 만큼 명령에 의해 곧바로 핸드폰을 휴
대하고 말았다.

신문사 기자로 있던 가까운 친구 역시 핸드폰에
은뎀으로 저항했지만 나와 같은 전철을 밟았다.

따라서 앞서 언급한 선배분은 주위 사람들이 적
극 보호(?)하고 무폰으로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도와
줘야 할 무형문화재급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
이다. 핸드폰은 누구와라도 닿을 수 있다는 편리함
과 근접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
감시받고 포착된다는 양면성이 있다. 이 둘은 냉엄
하게도 제로섬(Zero Sum)상태에 있다. 불편함으
로부터의 자유는 갖가지 구속으로부터 또한 자유
스럽지 못하다는데 비극이 있다. 친구랑 통화할 때
마다 곧 한 번 만나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잘 만
나질 못한다. 핸드폰으로 용건을 언제든 말할 수
있기 때문이다.

멀리있는 친구가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
한가 라는 고사(故事)는 마침내 고사(枯死)하고 말
것인가? **www**